

‘위대한 평범’의 길 버리고 어디로 가셨나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불교계도 추모 열기... ‘국민·민족 통합’ 화두 온 국민 가슴에 남겨

1995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부산시청에 출마했을 때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서민의 대통령’으로서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며 하심(下心)했던 한 사람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 미안해도 말고, 원망도 말고 운명이다”라던 선시(禪詩)와 같은 유서를 남긴 노무현 前 대통령.

영결식이 있기 전까지 사찰 1500여 곳을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 500만 추모객이 다녀갔다. 장례에는 그를 상징하는 노란색 모자를 쓴 군중들이 노란 풍선과 노란 비행기를 날렸다. 그곳에는 생전에 그를 지지했거나 지지않거나 하는 차별이 없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단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추모가 아닌 자타불이(自他不二)한 연유에서 오는 공업중생(共業衆生)으로서의 아픔이었다.

29일 장례와 함께 이튿날 잠시 빌려 입었던 그의 ‘웃’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영결식에서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의 영가축원처럼 ‘천강을 비추는 달처럼 영원히 남을 남’ 입에 틀림없다.

#무명 밝히는 반성의 기회

생전에 지중한 불연(佛緣)을 가졌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었기에, 그의 서거에 대한 불교계 인사의 슬픔은 각별했다.

노 前 대통령 서거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애도문 발표와 함께 조계사 등 전국 교구본사에 빈소를 마련하고 지역교구 본사인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에게 봉하마을 상황 등에 각별히 신경 쓸 것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태고종 등 각종 종단들 사찰들도 노무현 前 대통령 49제일까지 조석에 불시 극락왕생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입재했다.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은 24일 봉하마을의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분향을 찾



갈등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이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및 유족, 주한외교단 조문사절, 시민, 각계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영결식은 고인의 약력 소개와 조사,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의 종교의식, 고인의 생전 영상 상영, 참석자들의 헌화 분향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시민들의 애도 속에 노제를 지냈다.

아 조문했다. 같은 날,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과 前 주지 현승 스님 등 해인사 300여 대종도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발인까지 함께 했다.

애도문 발표도 줄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애도문에서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또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 前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민들 곁을 떠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애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노무현 前 대통령은 평범한 서민들의 삶과 함께하며 국민권의 보호에 헌신했다”며 “민족화합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으로써 민족사에 길이 빛날 치적을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노 前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권위주의의 청산, 민주화 등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치적을 남겼다”며 안타까워했다.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는 “정도의 개혁의지를 보여줬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삶은 우리 사회에 민주

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족역사의 희망이었다”면서 “생의 마지막 길에서 노 前 대통령이 남긴 자취는 민족의 무명(無名)을 밝히는 작은 반성이 될 것”이라 애도했다.

#화해 관용으로 화합할 때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질타하는 불교계 각 단체의 애도 성명도 이어졌다.

수경 스님 등 오세재주지 순례단은 ‘사람·생명·평화의 길’을 멈추고 봉하마을을 찾아 추모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탄핵 등 고초에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비보에 통곡의 눈물도 피를 뿜어 애도한다”며 비통해했다.



선자식을 찾아서 ▶14 지성 스님

인터뷰 ▶8 로버트 베스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노 前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스스로 되돌아보며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의 도덕성을 점검하고, 오만과 독선을 자제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천불교승가회(대표 법안)는 “노무현 前 대통령은 엄숙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 왔다”며 고인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불교계 인사들도 노 前 대통령 서거에 아쉬움을 아끼지 않았다.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前 대통령의 청렴은 의심할 수 없다. 주변사람들의 부적절

한 행동(노 前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것 같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은 “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수사로 노 前 대통령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다소 아쉽고 억울해도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위로했는데 침통하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관·혜종 스님 등은 4월 5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봉행된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 참석 후 노 前 대통령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면담 내용은 노 前 대통령 서거 후 알려졌다.

참석자의 질문에 따르면 안부물 묻는 스님들에게 노 前 대통령은 “낙향해서 편하게 농사 짓고 환경보호나 하며 편히 지내려고 했는데 요즘 심기가 괴롭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 평소 많이 읽던 책도 보기 싫을 정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혜종 스님은 “부처님은 부모를 해친 자라도 양갈음하지 말라고 했다. 업(業)의 윤회(輪廻)를 그치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도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들의 법문에 노무현 前 대통령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의 노 前 대통령의 발언과 1달여 후 이어진 유서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케 한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남긴 유서에서 대중들은 부처님의 법음을 들었다. 소신공양(懺身供養)하듯 보여준 절연한 각오의 행(行)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사는 것이 각박하다. 살기 힘들어 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조장된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을 일이다.

노 前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네 사는 삶이 마주보고 차를 몰아 달리다 먼저 핸들을 돌리는 쪽이 지는 ‘치킨런게임(Chicken-Run Game)’과 같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돌아보자.

다수의 군중들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가 남북과 지역 등의 대치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메시지라 믿고 있다.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자.

관련기사 4·5·27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법구경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
말과 행동이 같은 이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울곧은 마음으로 친한 공양물만들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합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출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2-1850

기죽년(운년)!
삼사수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천년교향소속인 **용문사**

얼레피알 두리양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불기 2553(2009)년도 본말사주지연수 일정 변경 안내문

교육원에서는 불기 2553(2009)년도 본말사주지연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주지스님들께서는 입교 일정에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종단의 중요 사안인 자연공립제에 의한 국립공립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개최하기로 한 <본말사주지결의대회>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현 계획	변경 계획
날 짜	가권역 : 6월 2일 ~ 4일 나권역 : 6월 11일 ~ 13일 다권역 : 6월 17일 ~ 19일 라권역 : 6월 24일 ~ 26일 마권역 : 7월 1일 ~ 3일 바권역 : 7월 13일 ~ 15일	통합권역 : 7월 1일(수)~2일(목) (음)5월 9일~10일
기 간	2박 3일	1박 2일
권 역	여섯 권역	통합 권역
장 소	전통불교문화원	제15교구본사 통도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법장